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 青松沈氏宗報

非 賣 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 八世祖 嘉善大夫 海州牧使 贈兵曹參判 青松沈公 安智 之壇



▶ 배위 정부인 경주김씨

곡성군 검면 남양리 산 51번지



▶ 安智 之壇

八世祖 嘉善大夫 海州牧使 贈兵曹參判 青松沈公 안지(安智) 之壇 配貞夫人慶州金氏之墓 內壬坐 外癸坐

공의 姓은 沈이요 諱는 안지(安智)이며 字는 수희(水喜)시고 본관은 靑松이다. 公은 西紀一四四三年(世宗二十五年)癸亥生이다. 進士 部將 海州牧使를 거쳐 加進대부(從二品)에 升進되었고 戊午八月二十六日 五十六歲에 在官 서거(逝去)하시니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증직되었으며 황해도 연백군 쾌궁면 한정리 한정촌 은두봉하(黃海道延白郡掛弓面寒井里寒井村銀頭峰下)子坐에 안장되었는데 墓碑가 있다고 전해온다.

配位 貞夫人 慶州金氏는 찬성(從一品)從直의 따님이신데 祖考는 府使승(繩)이시며 曾祖는 判書문민공(文愍公)충한(沖漢)이시고 外祖는 判書靖元公 정진(鄭鎭)이시다. 金氏할머님도 癸亥生이며 천품(天稟)이 온후현숙(溫厚賢淑)하시어 주위의 칭송(稱頌)이 자자(籍籍)하였고 一男을 낳으셨으니 도정공 휘 순(諱:淳)이시다. 都正公께서 처음으로 玉果+相村에서 살기 始作하셨으니 우리 玉果沈氏의 증시조(中始祖)이시다.

金氏할머님께서는 애석(哀惜)하게도 壽를 못하시고 親家에서 七月二十九日 早卒하시니 남원군 송동면 장포리 고치(南原郡松洞面長浦里羔峙)丑坐에 안장되었다.

繼配 貞夫人 泗川陸氏는 군수 철성(哲成)의 따님으로 辛酉生 이신데 五男二女를 낳으셨으니 황(潢)당(滄)점중

추(僉中樞)란(瀾)풍(豐)이조정랑(吏曹正郎)장(章)이시다. 甲子四月二十三日 六十四歲에 卒하시니 망세정 묘계하(忘世亭墓階下)乾坐原에 안葬되었다.

우리 靑松沈氏의 始祖는 高麗 文林郎衛尉寺丞 휘 洪孚이신데 그 子孫이 蕃盛하여 朝鮮朝에 三王后 十三政丞 四駙馬와 여러 忠孝名賢을 輩出하여 國利民福과 家門의 융성(隆盛)에 힘써 나오셨기에 名門大家로 손꼽히고 있는데 公은 그 始祖의 七代孫이시다. 公의 高祖 諱 덕부(德符)께서는 조선개국원훈(朝鮮開國元勳)으로 좌정승청성백(左政丞靑城伯)에 이르셨고 시호(諡號)는 定安公이시며 曾祖 諱 징(澄)께서는 仁壽府尹이시고 조고 諱 석준(石鵠)께서는 軍資監判官(軍資監判官)이시며 戶曹判書에 증직되었고 諡號는 양혜공(良惠公)이시다.

考 諱 선(璫)께서는 號가 忘世亭이신데 경기감사 겸집현전대제학(京畿監司兼集賢殿大提學)으로 계시다가 단종순위(端宗遜位)때 벼슬을 버리고 楊州로 돌아오셔서 망세정(忘世亭)을 지으시고 여생을 보내시며 朝廷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죽음을 각오(覺悟)하고 나아가지 아니하셨다. 後에 조정(朝廷)에서는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정일품(正一品)영동녕부사(領敦寧府事)를 증직하였고 士林에서는 그 절의(節義)가 生六臣과 같다하여 麟洞의 龜巖祠와 光山의 동호사(東湖祠)에 奉享하였다.

公의 墓所가 現在 北韓 땅에 계시어 南韓에 살고 있는

後孫들이 省墓할 길이 없어 고치(羔峙) 配位金氏 墓祭時 公의 단(壇)도 설치(設置)하고 같이 祭享하여 나왔다.

配位金氏山所가 五百餘年間 친정문산(親庭門山)에 계셨기로 宗議를 거쳐 一九九七年 丁丑十月 二十七日 이곳 검면삼정(兼面插亭) 우리 宗山吉地에 移葬하면서 公의 壇도 다시 설치하였다.

繼配 陸氏의 墓는 失傳되어 西紀一九八二年壬戌에 京畿道 南楊州郡 榛拔面 蓮坪里 山二一의 一 三子僉樞公 諱 당(唐)의墓 上原에 公과 같이 兩位의 壇을 세우고 時祭를 모시고 있다.

아! 公의 墓所를 살피지 못한지가 어언(於焉)五十餘星霜이 지났으니 송구(悚懼)한 마음과 추모(追慕)의 情을 금할 수 없다. 하루 速히 國土가 統一되어 公의 山所를 찾아 守護하게 되기를 간망(懇望)하고 配位 金氏할머님께서는 이곳 後孫들의 옆 吉地로 옮기셨으니 길이 기뻐하시고 便安하시기를 비오며 그 後孫들이 더욱 번성(蕃盛)하면서 두루 洪福을 누리고 國家社會發展과 家門의 융성(隆盛)에 많은 공헌(貢獻)이 있기를 기원(祈願)하면서.

西紀一九九七年丁丑 十月二十七日  
十七代孫谷城宗會長 前谷城郡守 聖植 謹撰  
三原書藝學院長 新昌後人 孟千鎬 謹書

### 알림

### 靑松沈氏 安孝公宗會 端午節祀奉行 定期總會 開催公告

西紀二〇〇五年度 安孝公 端午節祀奉行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저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日時：서기二〇〇五年 六月 十一日  
十時 端午節祀奉行

場所：水原市 靈通區 二儀洞 四〇一번지  
安孝公墓前齋室

### 附議案件

- ◎ 二〇〇四年度 會務報告
- ◎ 二〇〇四年度 決算報告 審議承認의件
- ◎ 二〇〇五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案 審議承認의件
- ◎ 宗土處分 取得 訴訟遂行등 議決權 委任案 承認의件
- ◎ 其他 宗務에 關한 事項

西紀二〇〇五年 五月 일

靑松沈氏安孝公宗會  
會長 沈斗燮

※ 個別通知를 省略하오니 인근 門中과 연락하시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단제로 오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의 가장 현상공모 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안



1955년 弘變씨의 도안



白時鏞씨의 도안



대중회 예시(안)

▶ 우리 문중에서 그간에 사용한 가장(家章) ▶ 지금으로부터 약 85년전에 의장가이며 조남서림 경영주이던 백시용씨가 매일신보에 게재했던 도안을 우리 일가분인 지촌 흥섭(芝村, 弘變)씨가 이를 발견하고 백씨로부터 양도받 ▶ 후 도안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니까 그 분의 손자인 경석(曠錫)씨가 할아버지가 만드신 당시의 원안을 보내왔기에 함께 게재합니다.

**<공모내용>**



심봉래씨 공모작  
(고양시 일산)



심승길씨 공모작  
(밀양시 하남)



심효식씨 공모작  
(독일 거주)



심호섭씨 공모작  
(서울)

**<도안설명>**

**\* 심 봉 래 \***

1. 청송심씨의 관향인 靑松의 푸른 소나무를 四方으로 둘러 그 안에 沈자의 “사”와 “口” “자를 넣어 청송심씨를 상징하였음
2. 전체구도가 사방으로 발전하는 상징이며 푸른청송은 번영과 심문의 기상을 표현하였음
3. 황색은 귀함과 광명, 희망을 나타냄
4. 주위에 “청송심씨대중회”글자를 넣어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였음
5. 宗旗는 청색 또는 백색마탕으로 하고, 뺏지는 금색

**\* 심 승 길 \***

1. 우주와 세상을 상징하는 원으로 테를 두르고 그 중심에서부터 4방으로 도약하는 듯한 “심”자의 도안이 4가 있음
2. 세상의 중심에서부터 심문이 번성하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하라는 뜻으로 사방으로 퍼져 나갔음
3. 바탕은 조상의 청렴함과 순수함을 의미하는 흰색으로 하고 글자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청색으로 함
4. 뺏지는 금색마탕에 청색으로 하고, 종기는 흰 바탕에 청색으로 글씨를 새기고 금실로 사방을 장식함

**\* 심 효 식 \***

1. 종기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창공과 우리 앞에 넓게 열려있는 세계를 뜻함
2. 원의 둘레는 금색이고 태양을 의미했는데 우리집안을 빛나게 가꾸신 선조님부터 오늘날까지 각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우리 집안어른들의 힘찬 家쟁력을 태양의 강력한 생명력에 비유함
3. 3개의 산과 현비암 그리고 찬경루는 원경이며 사실화를 피하고 추상적인 도안을 택해 흰색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며, 3개의 산은 보광산, 방광산, 주왕산이며 동시에 현비암도 나타낸 것임
4. “청송심씨”글자는 금색이며 우리 가문의 황금같이 고귀하고 무궁함을 뜻하고, 원내의 “청송심씨”라 쓴 글은 우리가장을 타인이 보이도 곧 청송심씨의 가장임을 알 수 있음
5. 가장은 명함이나 편지지 또 여러곳에 사용할 수 있어 단색을 택하고 뺏지는 우리 중회신문에 이미 발표한대로 금박이 좋음

\* 현재는 당초의 弘變씨 도안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흥섭씨가 도안한 원안이 심문의 특징을 보다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바 이번에 공모된 3편의 안과 함께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2005年度 하계수련대회 개최**

第二十二回 靑少年夏季修鍊大會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목적 ●**

- 一. 뿌리를 배우고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기르고자 하는데 있으며
- 二. 문중의 觀望實地인 靑松을 방문하여 시조묘소의 성묘와 先祖의 여러 지역 역사적 사적을 순례하고
- 三. 일가간에 함께 속식하며 교류하고 또 혈육의 존귀함을 가슴으로 느껴보는 계기를 삼고자함에 있음

**● 다 음 ●**

- 一. 수련기간 : 七月 二十七日 부터 七月 二十九日 까지 (三泊 三日)
- 二. 수련장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경의재景齋 岳隱公齋室
- 三. 수련대상 : 靑松沈門의 初·中·高·大學生 및 희망하는 宗人 (남녀불문)
- 四. 수련경비 : 교재 및 숙식무료제공필기도구세면도구는 각자지참

**● 일 정 ●**

- 二十七日 : 오후 一時까지 각자 도착. 오후 二時 입소식. 오후 六時까지 四교시.
- 二十八日 : 오전 九時부터 十二時까지 三교시. 오후 一時 始祖墓所省墓祭床 陳設法수강
- .. 오후 二時부터 周王山관광
- 二十九日 : 九時부터 一時間 특강. 十時수료식 후해산

**2005년 5월 청송심씨대중회 심장심명구**

문의처 : 大宗會 〇二二二六七八五七 〇一六二二八二二六二四  
.. 靑松有司 〇一一八〇五二九四三  
※ 五명이상 단체로 참석할 경우 사전에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파악은 모든 준비사항에 포함합니다.

**曉窓公派宗會 任員名單**

- 顧問 : 承龍 興燮
- 會長 : 相昊
- 副會長 : 鳳來 容圭
- 總務 : 成來
- 監事 : 海燮 載弘
- 理事 : 承寬 承喜 慶來 尙來 中來 慶燮 元燮 載西 憲圭



근대 시기(詩妓) 평양의 채금홍 (下)



부회장 심영구

이렇듯 조국독립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금홍은 순종께서 승하하여 국상이 나자 서울로 올라왔다. 창덕궁 앞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통곡하는 남녀노소의 광경을 보고는 슬픔을 못 누르고 시로써 감회를 적었다.

창덕궁 바라보며 통곡하는 남녀노소  
신민된 의가 중해 애도하는 심정이라  
순종이 한말(韓末) 이기에 그를 슬퍼하리라.

순종의 죽음을 순종 개인만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한 나라가 망하는 국가의 운명으로 보고 애통하는 내용이었다. 그 가녀린 기녀의 몸으로 이처럼 家절한 나라사랑의 정신이 벌써부터 확고했다.

그녀가 어느 날 평양의 내노라 하는 명사들과 황학루(黃鶴樓)로 놀러갔다. 원래 황학루란 중국의 양자강가에 있는 정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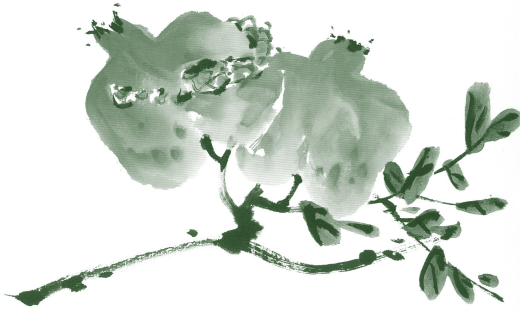
이태백이 그 곳에 올라 현관을 둘러보다가 최호(崔顥)의 시를 보고는 그만 기가 질려 붓을 던지고는 결국 봉황대로 가서 <봉황대>시를 지었다는 고사가 있다.

평남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강동, 강서로 나누어진다. 강

동의 절경 삼십추동천(三十秋洞天)의 삼등(三登)에 누각이 있다. 이 누각이 양자강의 황학루를 본따서 이름 붙여진 황학루다. 금홍이 누에 올라 이런 저런 고사를 듣고는 즉석에서 한 수 읊었다.

최호가 처음으로 황학루에 오르고 (崔顥初登黃鶴樓)  
이백이 다음으로 황학루에 올랐지 (李白再登黃鶴樓)  
평양의 미희들과 제제 재사 모여서 (柳京佳人與才子)  
오늘은 세 번째로 황학루에 올랐네 (今日三登黃鶴樓)

대동강의 황학루를 양자강의 황학루에 맞물리고 여기 놀러온 평양의 명사들을 중국의 최고시인 최호나 이태백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녀의 시재가 놀랍지 않은가! 해서 그들은 금홍의 시를 새긴 편액을 만들어 황학루에 걸어 놓았다.



어린 기녀의 시가 이곳을 거쳐간 내노라 하는 명사들의 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겨루게 되었으니 대단한 자격이었다.

금홍은 시재만 뛰어난 게 아니었다. 서두에 전형적인 평양기라고 한 바 있거니와, 이제에도 밝아 건달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끌어내는 테도 명수였다. 자기의 삼남매를 모두 만석군 부호도 어가다는 일본 유학을 시켰다.

금홍의 도움으로 큰 오빠는 조도전(早稻田)대학을, 작은 오빠는 명치(明治)대학을, 막내 동생은 대관상선(大阪商船)학교를 졸업했으니 가정에서도 그녀의 공이 컸다.

그 후 청년문사와 열렬한 연애에 빠진다. 이에 그 어머니가 못마땅히 여겨 극력 반대하자 검은 비단같이 곱던 낭자머리를 싹둑 잘라버려 당시 사회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세상을 비판하고 30살도 되기 전 스스로 극락에 귀의하였다.

그녀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읊었다.

하늘 가 의탁 없는 나그네 신세 (天下無依客)  
세상에 버림받은 삭발한 여인 (江湖斷髮孀)  
가련타 나와함께 눈물 흘린 이 (憐余同拭淚)  
거울 속의 한 사람 그뿐이로다 (只有鏡中人)

너른 천지에 어디를 가나 의지할 아무도 없이 쓸쓸한 외톨이 신세를 자탄하며 한 많은 세상을 스스로 떠났다.

그녀가 생전에 평양의 기자림 뒤 아미산(娥眉山) 공동묘지를 보고 쓴 시에도 그런 한이 묻어 있다.

아미산 공동묘지 높고 낮은 저 무덤엔  
주문(朱門 : 부자집) 백옥(白屋 : 가난한 집)  
구별 없고 양반 상놈 차별 없다.  
가련타 인간공도(人間公道)를 여기서만 보노라

어려서는 가난으로 쪼들었고, 자라서는 기녀로써 온갖 세파에 시달렸으니, 한 많은 이승을 버리고 그녀의 말대로 인간공도의 저승에서나 편히 잠들었을까?

<끝>

- 大宗會 副會長 沈永求 -

美國 Monterey 訪問記 (上) 편



심 명 구

미국 Monterey에 있는 두 아들의 초청으로 舊正 연휴를 끼고 20여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0시간(오는 길은 12시간)을 비행했지만 비행기내에서의 음악과 영화와 세심한 서비스로 지루한 줄 몰랐다. 비행기 유리창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佳景에 아내는 감탄을 연발한다. 샌프란시스코 상공에서의 내려다 보이는 아메리카는 녹색의 축복 받은 가나안 땅 그것이었다.

비행장에 마중 나온 아들과 손주의 영접을 받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200km지점, 아름다운 풍경과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Monterey 반도를 향해 달렸다. 반도의 북쪽으로 <스타인 벅>의 소설에서 알려진 도시 Monterey가 있고 남쪽으로는 예술가의 도시로 알려진 Camel市가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끼고 도는 17-Mile Drive가 이 2개의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스를 갖춘 Pebble Beach가 그 안에 있으며 Big Sur에 이르면 풍요로운 산의 매혹과 해안의 절경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Monterey는 미국 내에서는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기를 휴양지에서 여유 있게 즐기며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곳으로서 집값이 제일 비싼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Monterey의 해변가를 거닐면 별장식 주택들이 눈에 들어온다. 200년이 넘는 나무들로 둘러 쌓인 집들이 20~30년이 됐다는 집들인데 상태가 깨끗하다. 새로 지은 집마저 오래된 집처럼 꾸미려고 復古風으로 짓는다. 북덕방에 나붙은 가격을 보면 방 2개 있는 자그마한 집도 1,500만불(15억원)을 호가한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의 집이 자리 값이 대단하다. 해변가의 저택 같은 집은 100억

원이 넘는 것이 허다하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집 주인이 아니고 실은 집을 봐주는 사람이다.

집 주인은 어쩌다 한번씩 오고 執事가 집을 봐주며 꽃꽂이와 청소를 담당한다. 실은 그 사람들이 호화주택을 즐기며 호강한다는 생각이 든다. 부자 동내를 빠져나가 해변 가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며 간간히 차를 멈춰 세워서 관광을 즐긴다. 해변 모래밭을 거닐어도 보고 파도를 따라 쫓고 쫓기며 장난도 하다가 넘어져 궁둥이를 파도에 적시기도 한다.

Pebble Beach를 거쳐 Camel市를 통과 Big Sur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바다를 감상하며 한참을 달리다 보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자연보호가 잘 돼 있는 自然 景觀에 감탄하게 되는데 Big Sur에 이르면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Big Sur에서 레스토랑을 들렀다. 展望이 좋고 뒤의 바다 眺望이 일곱이었기에 음식 맛 보다는 그의 名所를 찾아 들르는 사람이 많았다.



San Carlos Beach Park 과 Monterey Bay Park 공원을 들르니 숲속에는 다람쥐가 뛰어 놀고 있었다. 과자를 주니 숲속에 있던 다람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 나중에는 손바닥 위까지 뛰어오르며 과자를 먹는다. 사람들이 동물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니가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다람쥐 뒤를 이어 까만 못 새들이 숲속에서 병아리처럼 중중걸음으로 다가와 과자 부스러기를 다람쥐 사이에서 쪼아 먹는다. 미국은 동물들의 천국이다.

어부의 부두(Fisher man's Wharf)를 들르니 갈매기가 머리 위를 나르다가 먹을 것을 주면 손바닥까지 날아와 쪼아먹고 간다. 물개들과 바다사자들이 해변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수영하는 모습이 평화롭다. 부두에는 盛需期의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코발트색 요트가 석양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甲富들만의 동네인 17-Mile Drive, Pebble Beach 를 관광했던 날은 雨期때라 가랑비가 간간히 뿌렸고 바닷가라 날씨는 썩늘했다. 입장권을 내고, 마치 한국의 民俗村을 입장하듯 들어서서 긴 드라이브 코스를 밟았다. 이곳의 저택들은 100억대가 넘는 호화 저택/별장으로서 Lotto 를 몇 번 당첨 되도 살수 없는 高價란 것을 생각하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싶었고 成功 事例談이라도 듣고 싶었다.

불만한 곳으로는 21개소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가장 오랜 기간의 표상(landmarks)인 The Lone Cypress (외로운 常綠 針葉樹) 나무가 뾰족한 바위 위에 혼자 우뚝 솟아있는데 250년의 風霜을 겪으며 긴 壽命을 자랑하며 있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진 찍힌 나무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지 찾아 오는 관광객마다 그 나무를 찍느라고 법석이다.

China Rock이라는 怪岩과 Bird Rock이라는 곳에는 새 떼들이 무리를 지어 온 바위를 덮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들이 아닌가 생각 든다. The Ghost Tree 는 200여년의 모진 풍파와 역사를 간직하고 앙상하게 형태를 들어내고 있는 썩은 枯木인데 모습이 흉하지 마는 않고 오히려 古風과 현대적 감각과 잘 어울려져 이곳 景觀을 더욱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았다.

Poppy Hills Golf Course는 매년 열리는 AT&T Pebble Beach 국제 프로, 아마추어 경기장이다. 이 골프장을 비롯 3개소가 더 있다. 세계 최고의 골프장으로 골프광들이 모여들어 관광하며 골프하며 하루 숙박이 200만원이나 하는 이곳 호텔에서 묵는다. 이곳의 호텔에 한국의 전 대통령 N씨도 골프를 치기위해 묵었다고 한다. 마이클 잭슨도 결혼 시 이 호텔을 몇 일간 전용으로 묵었다니 마이클 잭슨답게 최대의 호화 결혼비용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다음호에 계속>

- 仁川宗會 監事 沈明求 -







# 宗 事 消 息

## 始祖墓所 春享奉行

2005년 4월 5일(寒食節)

初獻：敏燮 原州  
 亞獻：承澤 禮山 相郁 鐵原  
 終獻：揆華 蔚山 炅燮 昌原  
 大祝：相燾 青松  
 執禮：相秀 青松  
 執事：相守 昶燮 圭煥 再澤



▶ 시조묘소 헌관 沈敏燮



▶ 중대산 산소

獻官 沈相允 鐵原宗會

▶ 祭需費獻誠金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鐵原宗會	100,000
都總制公派宗會	200,000	承澤(禮山宗會)	300,000
知成州事公派宗會	100,000	正郎公派咸安宗會	100,000
府東面宗親會	100,000	慶州青年會	100,000

## 二世祖 閔門祇侯公 春享奉行

2005년 4월 19일(음:3월 11일)

初獻：承澤 (禮山)  
 亞獻：相培 相佑  
 終獻：奎澤 (서울) 容圭 (서울)  
 大祝：玄根 大田, 忠南宗會長  
 執禮：相稷 大宗會監事  
 執事：載澈



▶ 祭需費獻誠金

都總制公派(原州)	100,000	全北青松會	100,000
安孝公派宗會	300,000	沈承澤(禮山宗會長)	300,000
金堂山宗會(光州)	200,000	沈奎澤(서울南加佐洞)	200,000
碧山公派宗中(咸安)	100,000		

## 三世祖 青華府院君 春享奉行

4월 21일(음: 3월 11일)

府院君 妣位  
 初獻：斗燮 宜杓  
 亞獻：相旭 相基  
 終獻：玄根 富龍  
 大祝：光澤 光澤  
 執禮：相稷 相稷



▶ 청화부원군 안성



▶ 청화부원군 배위 김씨

▶ 祭需費獻誠金

安孝公派宗會	300,000	沈承澤(禮山宗會)	300,000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	沈奎澤(서울)	100,000
全北宗會	100,000	沈相德(안성)	50,000

## 四世祖 青城伯 春享奉行

4월 23일(음:3월 15일)

青城伯 妣位  
 初獻：斗燮 弘澤  
 亞獻：原澤 承澤  
 終獻：隆求 忠燮  
 大祝：相直 相直  
 執禮：相稷 相稷  
 執事：載求 載澈



▶ 청성백 춘향봉행

▶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全北宗會(宜杓會長外 理事一同)	1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承澤(禮山宗會長)	300,000
寧越公派宗會	200,000		

## 四世祖妣(淸州)山所 春享奉行

4월 25일(음: 3월 17일)

四世祖妣 都總制公  
 初獻：成輔 相烈  
 亞獻：承澤 相珪

終獻：奎澤 玄根  
 大祝：容圭 容圭  
 執禮：相昊 相稷  
 執事：相基 相中



▶ 4世祖 초배위 청주송씨 춘향



▶ 5世祖 도총제공 춘향

▶ 祭需費獻誠金

安孝公派宗會	300,000	承澤(禮山宗會長)	300,000
都總制公派宗會	200,000	奎澤(서울 남가좌동)	100,000

## 四世祖 岳隱公(諱:元符) 時享奉行

5월 3일(음: 3월 25일)

岳隱公 令同正公 石村公  
 初獻：榮燮 榮燮 榮燮  
 亞獻：宇永 相喆 相錦  
           ：敏燮 鍾赫 相伯  
 終獻：玩澤 揆聖 相琬  
           ：宜燦 烽燮 煜  
 大祝：鼎澤 華燮 相九  
 執禮：東燮 琬澤 琬澤



▶ 춘향봉행

▶ 祭需費獻誠金

縣令公宗會	100,000	沈相喆(大邱宗會長)	100,000
府東面宗親會	100,000	심인섭	50,000

## 五世祖妣 三韓國大夫人 春享奉行

4월 22일(음:3월 14일)

初獻：喆周 安孝公宗會副會長  
 亞獻：相旭  
 終獻：相弘  
 大祝：光澤 安孝公宗會 運營委員  
 執禮：相稷 安孝公宗會總務  
 執事：載澈 相愷 彥村



# 청송심씨종보

6 제53호 2005년 5월 20일



▶ 祭需費獻誠金 承澤(禮山) 300,000



▶ 남양주 망세정공 춘향봉행

▶ 祭需費獻誠金  
蔚山內禁衛宗會 200,000 찬구 100,000

## 仁順王后 忌辰祭 奉行

2005년 4월 24일  
亞獻官: 沈忠燮



## 六世祖 良惠公 時享奉行

4월 28일 (陰: 3월 20일)

良惠公	妣位	滄洲公
初獻: 璋燮	鍾赫	大燮
亞獻: 光植	載求	榮燮
終獻: 愚夏	洪燮	奎燮
大祝: 愚增	愚增	愚增
執禮: 載冕	載冕	載冕



## 七世祖 忘世亭公 春享奉行

5월 1일(음: 3월 23일)

忘世亭公	妣位
初獻: 晶求	영섭
亞獻: 근식	찬구
終獻: 求亨	형식
大祝: 德求	德求
執禮: 載冕	載冕
執事: 鍾赫, 載求	鍾赫, 載求

## 世宗大王 忌辰祭 奉行

2005년 4월 8일  
亞獻官: 沈載求



## 昭憲王后 忌辰祭 奉行

2005년 4월 28일  
亞獻官: 沈行鎮



## 淑容沈氏 忌辰祭 奉行

2005년 4월 17일  
終獻官: 沈容圭



## 宗廟祭禮 奉行

2005년 5월 1일  
亞獻官: 沈載澈



▶ 제실 앞 도열장면

##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약 1,200P	50,000원	(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약 600P	30,000원	( )권
3. 종보축쇄판(1-50회)	-약 400P	20,000원	( )권
4. 제향홀기(휴대용)	-약 30P	3,000원	( )권
5. 종사수첩(휴대용)	-약 140P	3,000원	( )권
6. 뱃 지		1,000원	(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집 주 소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 )은행( )지점

\* 대종회 계좌번호 : 농협(을지로4가) 084-01-179314 심 명 구

### ❖ 기재요령

1. 파명은 봉익공파, 악은공,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인수부윤공, 안효공, 동지총제공으로 구분
2.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3.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명을 기재하고, 송금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
4. 송금한 은행과 지점명을 기재

### ❖ 공지사항

1. 수권속편 신청금은 대동세보 관리통장 [농협 084-01-179314 심명구]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수권속편 대금을 입금하신 분은 반드시 대종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7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쇄. 명포는 금년 11월말로 예정하고 있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보내실 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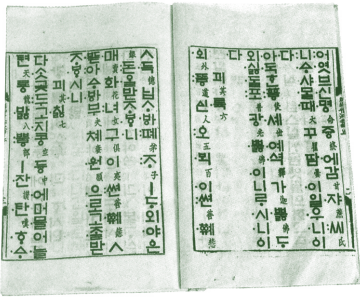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청송심씨대종회  
우편번호 100-310  
전화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地方巡禮

世宗大王 忌辰祭 參班記

매년 4월 8일은 世宗大王의 기신제 일이다. 세종대왕의릉인 영릉(英陵: 여주군 룡서면 왕대리)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참반원이 족히 7~800명은 되어 보인다. 찬의(贊儀)의인솔로 룡 정문(훈민문)을 들어선 제관들은 제일 앞에 奉燈을 한 2명이 길 좌우에 자리하고 바로 뒤에는 奉祝을 한 祝官이, 그뒤로 찬의를 비롯한 三獻官과 諸執事가 정중한 자세로 줄을지어 홍살문을 통과하여 마침내 丁字閣에 이르렀다.



-월인천강지곡-

三獻官이 碑閣앞 방향으로 도열하고 諸執事가 參班員 우측 앞머리에 도열한다. 執禮가 근엄한 자세를 하고 독홀(讀忽)을 시작한다. “三헌관 국궁4배, 흥평신”(三獻官 鞠躬四拜, 興平身) 집례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모든 참반원에게 통달된다.

이렇게 시작된 기신제(忌辰祭)는 약40분이 지나서야 禮畢(禮畢)로 끝이 났다.

이 영릉은 원래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太宗의 묘가있는 현릉의 아래(지금의 강남 내곡동)에 있었으나 文宗 端宗 世祖를 거치면서 많은 풍파가 있었던 것을 들어 吉地가 아니라는 공론에 따라 睿宗(睿宗) 元年(1469년) 현재의 영릉으로 천장 하게 되었다.

영릉은 세종대왕과 왕비인 소헌왕후가 합편으로 모셔

져 있는곳이다. 세종대왕은 조선조 27대왕중 聖王으로 추앙받는 분이고 비(妃)는 靑松沈氏 5세조 溫의 女로 우리 沈門에는 최초의 왕비가 탄생하였으며 四世祖 靑城伯에서 시작한 삼정승에 이어 우리문중에 현란한 역사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소헌왕후(昭憲王后)께서는 충녕군(忠寧君)이던 세종대왕이 1418년 양녕대군과 淸寧대군을 넘어 世子로 책봉되고 곧 조선조 四代王에 오르니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소헌왕후께서는 친정아버지(安孝公)가 무술옥사(戊戌獄事)에 사사(賜死) 당하고 집안 어른들이 줄줄이 귀양길에 오르는 가화(詰禍)가 일어나자 왕비자리마저 보전하는 일이 힘들게되었으나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賢君인 世宗이 계셨기 때문이다. 세종께서는 文宗, 世祖, 安平의 三王子를 생산한 왕비를 어떤 식이던 벌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일은 결국 소헌왕후는 물론 우리 문중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영릉 정문을 들어서면 우측에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고 좌측에는 세종전이 자리하고 있다. 세종전에는 세종대왕의 치적중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몇가지가 언뜻 눈에 들어온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논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을 창제하여 훈민정음을 반포한 일일 것이다. 당시 중국을 섬기는 많은 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우리만의 글을 만들어 냈으며 이 한글은 원리나 형태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익히기 쉽고 편리하여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글자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조창업을 찬양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위하여 世祖가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이 있으며, 석가의 공덕을 찬양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세조 5년에 발간된 월인석보(月印釋譜)가 있는데 이 책들은 한글결이 한글 창제후 처음으로 한

글로 만들어 졌다는데서 커다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때에 세종께서는 이미 범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여 죽을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삼심을 받게 하는 삼복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인 자는 살인강도죄를 제외하고는 수감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감옥내의 위생과 난방도 철저히 다스려 죄수들이 병들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세종전을 나오면 양쪽으로 20여개의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 시계, 물 시계를 비롯하여 천문관천대(天文觀天臺)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측우기(測雨器)도 있다.

세종대왕의 치적은 한이없다. 兵事에 관한 문제, 농사문제, 세무문제, 음악에 관한 문제 등. 다만 이분이 조선조에는 제일의 聖君이요 우리 沈門에서 보면 사위요, 고모할 아버지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 문중에서는 매년 아헌관(亞獻官)을 배정 받고 祭禮에 參班한다. 오늘도 우리 문중에서는 아헌관을 배정받고 참반을 하였으며 날씨도 따스하고 쾌청하여 祭를 올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끝>

- 33 -



▶ 세종대왕 동상

강좌

■심갑보(심갑 LMS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중소기업이 죽었다는 세가지 이유



부회장 심갑보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점점 커져가는 임금격차 문제다. 제조업중 중 종업원 500명이 넘는 대기업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종업원 10~20명인 영세 제조업체의 임금수준은 1980년에 87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져 2003년에는 영세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53% 수준까지 떨어졌다. 작년 산업자원부 정책자문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59.6%로 10년전 73.7%보다 14.1%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대기업직원이 월 200만원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12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임금격차 때문에 대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면 우수인재들이 대거 몰려와 그 경쟁률이 수10대 1에서 수100대 1까지가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려하면 소위 일류대학 출신들이나 우수인력이 지원조차 하지 않아 R&D에 필요한 소수의 우수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위 3D업종인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피현상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러면 선진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이 그 첫째 이유다. IMF 위기 때 미국정부가 한국의 30대 재벌 그룹만을 겨냥해 구조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동안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 핵심사업으로 몸집을 줄이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켰지만 중소기업들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아 기술은 제자리인 채 인건비만 높아져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 이후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5배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하락해 대기업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상위 20%, 하위 20%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이익률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또 한가지 이유는 협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어느 재경부 고급간부의 '전경련체협1년' 보고에 의하면 하도급 업체가 이익을 많이 내자 그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절반으로 깎아버렸다는 것이다.

'자기를 때문에 수입을 많이 올렸으니 이익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삼아야 할 일부 대기업이 이런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는 현실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 차례 들었다.' '중소기업이 밤을 새워 특허를 따놓으면 납품을 받는 대기업은 이를 헐값에 팔라고 한답니다. 안 그러면 납품업체를 바꾼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는 거죠.'(동아일보 2005.3.16. B 3면 참조)

또 강력한 노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주는 대기업이 그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남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자동차업체가 과업을 하거나 과도하게 임금을 올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1차 하청업체로 오고 1차 하청업체는 또 그 부담을 2·3차 하청업체에 전가한다'고 털어냈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경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대기업총수의 말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글로벌경쟁을 떠받치지 못하면 우리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도 한낱 종이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많은 중소형 스타기업들이 산업의 허리를 탄탄히 받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은 물론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생산성 향상운동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이다. 대기업들은 혼자만 앞서가려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경영 및 기술의 핵심자원을 중소기업에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역할이다. 현재 대기업위주로 추진되고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사업을 확장시켜 능력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범국가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보호중심체제에서 벗어나 경쟁체제 중심으로 중기업을 지원해야한다

따라서 본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과 임금의 양극화현상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끝>

- 大宗會副會長 沈 甲 輔 -



梅 一 生 寒 不 賣 香  
 桐 千 年 老 恒 藏 曲

東 谷 沈 愚 慶 書

千年老桐恒藏曲 오동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동천년로향장곡) 소리는 변함이 없고  
 梅一生寒不賣香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매일생한불매향) 향기는 나온다

《陶淵明 詩》  
 東谷 沈愚慶 書

人 事

- 武吉 : 국민은행 인프라 개발팀장
- 成輔 : 대신詰자 신탁운용 준법감시팀장 겸 리스크 관리팀장
- 在先 : 삼척대 취업진로 본부장
- 洛珣 : 삼척대 도서관장
- 相基 : 우리詰자증권 지산동 지점장
- 載復 : 한국 야쿠르트 이사대우
- 鉉理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사회복지 심판 담당관
- 祥燮 : 동부화재 국제해상업무 본점 부서장
- 均欽 : 예금보험공사 이사
- 昌求 : YTN 마케팅국 마케팅 기획 부장
- 揆範 :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達勳 : 국세청 중부지방 국세청 총무과장
- 在鍊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장
- 相雲 : 산업은행 기업금융 실장
- 成揆 : SK생명 서부산 지점장
- 旭燮 : 용인송담대학 산악협력처장
- 相熏 :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 揆先 :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 宜杓 : KBS, 비즈니스 감사
- 沈燮 : 한국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부서장급
- 揆剛 : 경기대 여학생문화원장 겸 서울분원장



- 오자정정 -

〈종보51호〉종보성금  
 재환(인천 가좌동) 30,000원을  
 일산 가좌동으로 정정합니다.  
 〈종보52호〉종보성금  
 의수(태안) 30,000원을 20,000원으로 정정합니다.  
 固城宗會를 고성군 宗親會로 정정합니다.  
 - 박사학위 수여 -  
 심재경 현재 연세대학교를  
 세종대학 근무로 정정합니다.  
 - 세고선 목록 13世 杜菴公 諱 敏謙을  
 12世로 정정합니다.

祝

入 選

순옥 : 제17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자 한글입선  
 재숙 : 제17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자 한글입선  
 흥보 : 제17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자 한글입선

祝

文 人 畫 展

沈宇燮 아호 5有竟  
 1991년, 1995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사군자 특선2회  
 (미협주최)  
 2004년 11월 서울 인사동 “에나르”화랑 개인전  
 2005년 4월12일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심사위원

訃 告

沈 相 禹 : 大宗會 指導委員, 前 岳隱公派宗會 會長,  
 숙환으로 2005년 4월 16일 별세  
 子 漢燮, 光燮  
 딸 賢珠.

總 會 贊 助

長城宣武公宗會(彪義祠)	100,000
承澤(禮山宗會 會長)	300,000
高尺宗會(鎭川)	100,000
仲燮(부여)	20,000
鳳燮(군포)	30,000
仁川宗會	200,000
牙山進士公宗會	100,000
全羅北道宗會	200,000
魚澤(顧問)	100,000
堯燮(金浦)	50,000
相圭(仁川)	100,000
萬實(신월동)	30,000
南 서울宗會	100,000
扶餘宗會	30,000
相潤(光州)	3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相華(一山)	30,000
谷城宗會長 鎭植	100,000
晉州宗會	100,000
靖夷公派 副使公宗會	100,000
善山宗會長 龍錫	50,000
光州正郎公宗會	50,000
大田宗會 玄根	50,000
牙山承仕郎宗會	100,000
金泉宗親會	100,000
相福(신림동)	50,000
大邱宗會	100,000
鐵原宗會	50,000

理 事 會 費

載警	50,000	2005年	仁川
甲澤	150,000	2003~5	扶餘(장암면)
暎求	50,000	2005	서울(진관동)
一用	50,000	2005	安城(봉산동)
逸燮	50,000	2005	大田(삼천동)
中鎭	50,000	2005	忠州(연수동)
仲燮	50,000	2005	扶餘(임천면)
虹燮	50,000	2005	大邱(신천동)
相銀	300,000	2005	副會長(수지)
敏燮	50,000	2005	原州
載萬	100,000	2003~4	廣灘
鍾默	50,000	2005	群山
上銀	50,000	2005	서울(응암동)
政燮	50,000	2005	安城

성금감사합니다

상후	50,000	안산
載警	50,000	인천
강채	50,000	완도 보길도
창호	30,000	무주
창식	50,000	신림동
우만	30,000	천호동
충석	30,000	대전
中鎭	20,000	忠州
弘輔	50,000	晉州
龍求	20,000	全州
淸州宗會	300,000	淸州
永燮	50,000	富平
경석	100,000	방이동
鍾默	20,000	群山
孟洙	10,000	미이동
尙州宗會	100,000	慶北
민섭	30,000	석관동
호섭	50,000	염창동
동섭	30,000	홍성
상선	30,000	신정동
曉窓公宗會	200,000	
상만	30,000	全州

송금안내

천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 098-04-046  
 대중회 심명구
-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중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 송 심 씨 대 중 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유사 상해 011-805-2943